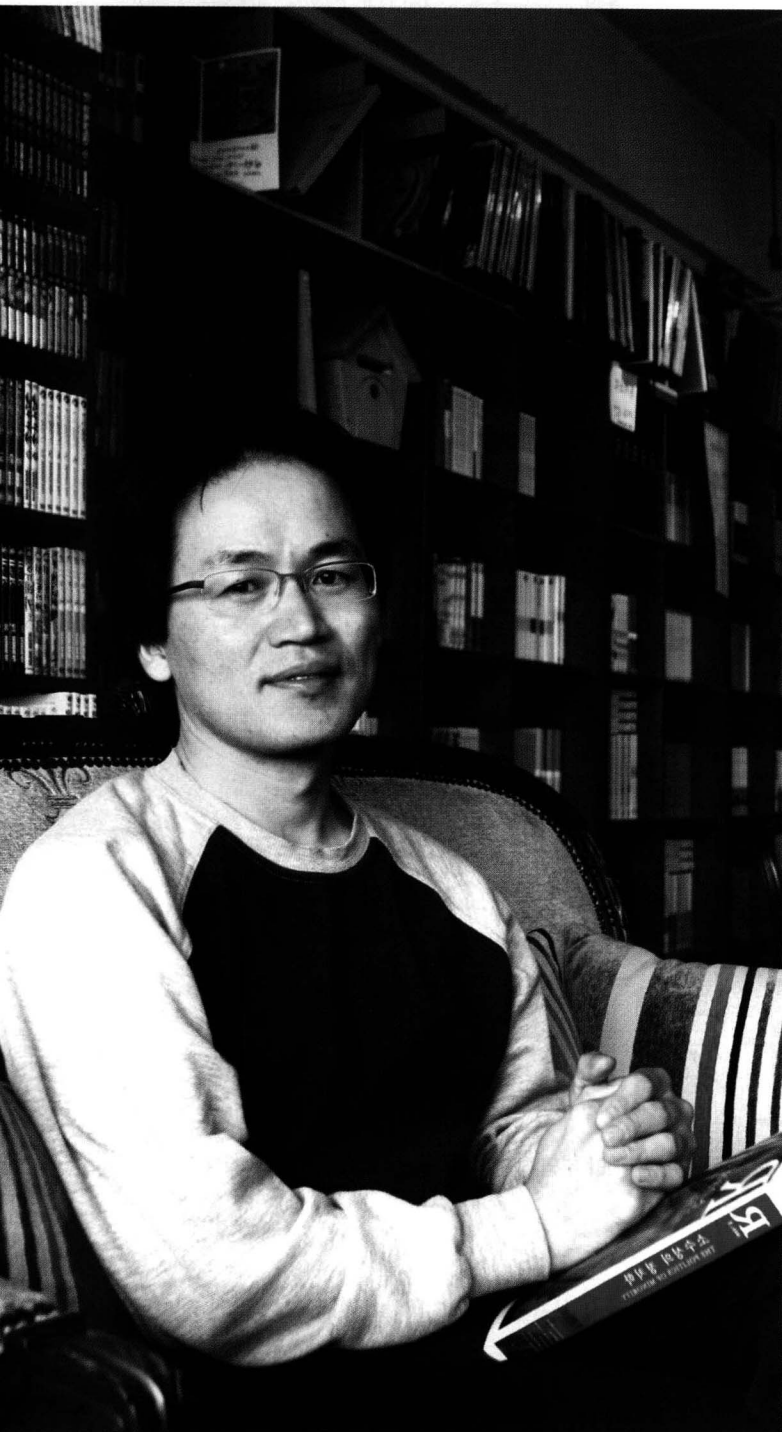


타자들의 다른(alter) 혁명(Revolution)을 꿈꾼다 인문사회지 <R> 창간호 수유+너머 고병권 대표

글_이주연 기자 | 사진_박신우 기자



“우리가 소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’ 라는 입장은 여전히 주류적 시선입니다. 우리가 그들입니다. 우리가 소수자인 것을 자각한다는 의미, 우리가 소수자로서 발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‘소수성의 정치학’ 을 창간호 주제로 삼았습니다.”

인문사회지 <R>의 창간호 주제에 대해 연구공간 수유+너머의 고병권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. ‘부커진’ 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이 잡지는 수유+너머와 도서출판 그린비의 공동기획으로 출발했다. <R>은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생겨난 수많은 타자(alter)에 주목한다. 고 대표의 말처럼 스스로 타자되기를 통해 ‘타자’ 들의 다른(alter) 혁명(Revolution) 을 꿈꾸는 장, ‘타자’ 와 ‘혁명’ 이 만나는 장을 열겠다는 계획이다.

“책의 깊이를 가지면서도 잡지의 넓이를 보여줄 수 있는 ‘부커진’ 이라는 형식은 <R>의 특성을 잘 드러냅니다. 이 잡지는 1차적으로 ‘한국사회의 소수성’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의 연구 결과물입니다. 그 원고들을 기본으로 다른 몇 개의 원고가 더해졌고, 맨 마지막에 인터뷰 원고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”

‘소수성의 정치학’ 이라는 주제로 묶여진 창간호에는 새만금 사건, 평택 대추리 사태, 이주 노동자, 중증장애인, 성적소수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있다.

“구체적인 독자는 누구’ 라고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. 있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도래할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. 진부한 표현같지만 우리의 텍스트 자체가 무기이고, 또 생산이길 바랍니다. 대의되지 않는 잠재적 차원의 동료를 찾고, 그런 동료를 만들 것입니다.”

보통의 잡지가 주제에 맞는 필진을 찾아 원고를 청탁하는 데 반해 <R>의 원고들은 1~2년에 걸친 프로젝트 팀의 연구 성과물이다. 그렇다보니 주제가 바뀌면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이 잡지 편집인이 된다. 고 대표는 “2호의 주제에 따라서 편집인은 바뀔 것이지만 특집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요소 때문에 <R>의 편집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” 이라고 했다.

“사람들이 이 잡지에 반응했다면 좋겠습니다. 당신이 선 자리에서, 당신의 친구들 옆에서 싸우는 데 이 책이 하나의 동료로 설 수 있으면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이 책이 때론 위안이, 때론 이론적 자원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.” ■